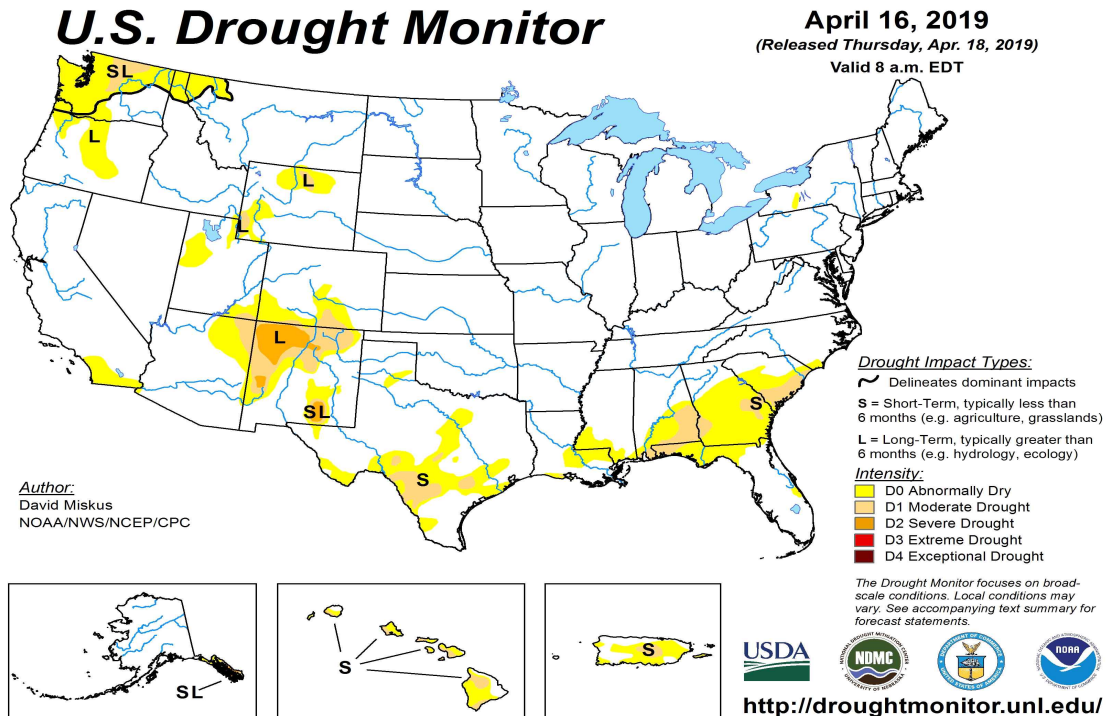


4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56)

□ 미국 기후 현황(4/14~4/21)

남부와 동부의 많은 곳과 중서부 일부에서는 연속해서 일어난 폭풍으로 강한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야외 작업 진행 속도는 더뎠다. 남-애팔래치아 지방 일부에서는 총강수량이 4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는데 동-텍사스에서부터 미시간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그 동쪽으로 아주 넓은 지역에 최소한 1-3인치의 비가 내렸다. 이번 주간은 북일리노이에서부터 미시간 아래쪽에 이르기까지 때늦은 강설이 있었는데 이 눈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았지만 지난 주에 주요 중서부 위쪽의 폭풍 전선으로 인해 덮인 눈은 계속 남아 있었다. 눈이 녹고 있고,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아래쪽 지역에 강한 강우가 내리면서 대부분의 중서부에서는 재식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원 북쪽 전역에는 토양이 차고 습하여 야외 작업이 제한되었지만 미국의 중앙 지대 전역에는 비교적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나라의 많은 곳이 온도가 평년 근처 또는 그 이상이었는데 대서양 연안 중부에서부터 뉴잉글랜드 남쪽에 이르기까지 주간 평균 온도가 10° F 정도였다. 반면,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에는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5° F 까지 낮았다. 그밖에, 서부는 온화했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우세했고 주간의 첫 절반에는 가장 강한 강우가 있었다. 캘리포니아와 남서부는 날씨가 좀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바뀌면서 야외 작업의 속도를 올리는데 유리했다.



□ 농업 현황 요약(4/15~4/21)

비가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과 남동부에서 가장 심하게 내렸는데 어떤 지역은 3인치 또는 그 이상 내렸다. 반면에 로키 산맥 중앙과 남부 그리고 ‘포 코너스’ 지역 일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과 동-텍사스는 주간 온도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았지만 나라의 다른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4/14~4/20)

■ 유럽: 남유럽에는 이로운 비가 내린 반면, 중유럽과 북유럽에는 단기 건조가 증대되었다.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 내린 중간-강한 소나기 (5-70 mm)로 계속되던 가뭄 걱정이 누그러졌고 겨울 곡류의 생식생장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올라갔다. 더 동쪽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비 (2-30 mm)가 내려서 생식생장 중인 겨울 작물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칸 반도의 남부와 동부에는 다양한 수준으로 (1-20 mm) 소나기가 내려서 후기 영양생장 중인 밀과 유채에게 유리한 환경 조건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헝가리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여서 생식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밀과 유채에 건조 피해 우려가 다시 대두되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북유럽에서는 단기-건조가 한층 더 심해졌는데 30일 총강수량이 중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에서는 평년의 25% 이하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기간 말미에는 구름과 소나기가 북쪽으로 확대되어 서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는 개화하는 밀과 유채에게 시기적절하게 수분을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 구소련(서부): 소나기가 내리는 시원한 날씨가 남부의 주요 재배 지역 전역의 겨울 밀에게 이로웠다. 몰도바와 중앙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남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총강수량이 10-50 mm 였는데 영양생장 중인 겨울 밀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고 있었다. 이번 주간 평균 온도는 평년보다 1-3° C 낮아서 작물 성장이 다소 느려졌다. 겨울 밀은 현재 분얼과 접합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5월 중순~하순 경에는 날씨에 민감한 핵심적인 생식 성장 단계와 초기 종실 비대 기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햇볕이 뜨는 날씨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초기 단계의 여름작물 재식이 잠시 중단되었다.

■ 동아시아: 남중국 전역에 내린 강한 소나기 (50-200 mm)로 생식생장 중인 조생종 벼에게 필요한 봄 총강수량이 평년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양쯔 계곡과 북중국 평원에는 다소 가벼운 소나기 (25 mm 이하)가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고, 서쪽 구역의 더 많은 곳에서는 총강수량이 더 많아서 생식 성장 중인 밀과 유채에게 이로웠다. 그밖에, 서중국과 중국 동쪽 일부에서는 목화 파종이 진행중이고 계절적으로 좀 더 따뜻한 북동부 일부에서는 옥수수과 콩 파종이 시작되었다. 추가적으로, 중국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따뜻하여 (평년 보다 1-5° C 이상) 파종과 작물 발달이 촉진되었다.

■ 호주: 남호주와 동호주의 밀 벨트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야외 작업을 하기에는 좋았지만 겨울 작물 재식을 위해 쓸 수 있는 토양 수분량은 제한되고 있다. 가뭄으로 줄어든 여름작물은 계속 수확되고 있고, 농민들은 밀, 보리, 캐놀라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매년 겨울 작물 파종은 대개 4월 중순에 시작하여 6월까지 계속된다. 많은 농민들이 파종기 초기에 파종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상당수의 농민들은 수분 부족 때문에 파종



전에 비로 적셔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밖에, 밀 벨트에서는 남호주와 서호주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3-15 mm, 지역적으로는 거의 25 mm) 표토 조건을 겨울 작물 파종 - 아마도 조생밀, 보리, 캐놀라 파종 등에 도움을 주었다. 평균 온도는 서호주, 남퀸슬랜드, 북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평년 근처였고 남동 호주에서는 평년보다 최고 5°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북부 생산 지역의 많은 곳에서 철지난 소나기가 많이 내리면서 여름작물 수확 작업이 중단되었다.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에서부터 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총강수량은 25-50 mm 또는 그 이상 내렸다. 동-차코의 몇 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총강수량이 (100 mm 이상) 집중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목화는 4월 17일 현재 차코에서 60% 이상 수확되었고, 위에 언급된 비 때문에 품질 손실이 다소 있었다. 다른 주요 생산 지역에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는 더 높음)가 발달하여 여름 곡물과 유지작물 수확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 아르헨티나 농업 지역 전체에서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1-3° C 높아져 만파여름작물의 빠른 성숙이 촉진되었고 남부 농업 지역들 (특히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농사철을 끝내는 동결 기록이 아직은 없다. 옥수수와 콩 수확은 4월 17일 현재 각각 31, 21% 완결되었다. 두 작물 모두 작년 대비 느린 추세였다. 해바라기 수확은 거의 98% 끝나고 있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에서는 소나기가 내려서 옥수수와 목화에 전반적으로 적합한 조건이 유지된 반면, 남부 일부에서는 건조 포켓들이 있어서 2차 작물로 심은 옥수수가 익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다. 두 번째 주 기간 동안 ‘마토 그로소 도 술’ 대부분과 파라나는 강수량이 25 mm 이하를 기록했는데, 서-파라나의 핵심 생산 지역들은 강수량이 10 mm 이하였다. 철에 맞지 않게 더우면서 (낮 최고 온도가 30° C 이상) 건조가 동반되어 생식생장부터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 밖의 남부 지역에서는 ‘리오 그란데 도 술’ 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면서 (25 mm 이상) 늦여름 작물 수확이 느려지기는 했지만 곧 심게 되는 밀 작물에게 필요한 수분을 올려주고 있었다. 상파울로와 미나스제라이스에서는 중간-강한 비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려서 사탕수수, 커피, 기타 작물에게 필요한 늦계절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한편 ‘마토 그로소’ 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바히아와 북동 내륙 (토칸틴스, 피아우이, 마란하오)에 이르기까지 계절 소나기 (10-50 mm, 지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가 머물고 있어서 옥수수와 목화에게는 좋을 것으로 계속 전망된다. 여름 더위로 (‘마토 그로소’ 와 토칸틴스에서 전통적으로 더 더웠던 장소들에서 낮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대 중간까지 도달했다) 인해 물을 잘 준 작물에게는 빠른 성장이 촉진되었다.